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 거 일
소셜식·사회평론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한들'의 첫 자리는 늘 재벌이 차지했다. 현 정권이 들어서자, 재벌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어졌고 재벌에 대한 규제는 부쩍 엄격해졌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 정책은 인기가 높다.

묘한 것은 모두 재벌을 믿고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재벌 제품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서도 산다. 사람은 누구나 소비자이므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은 재벌을 믿고 좋아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종업원들을 잘 대우하니, 재벌의 종업원이 되거나 종업원을 배우자고 인기를 모두 바란다. 재벌이 빚을 내려 하면, 은행 차입이든 사채 발행이든 모두 중소기업들보다 싼 이자를 받겠다고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열 개만 있다면

나선다. 해외에서도 사정이 같다. 많은 사람이 재벌을 혐오하면서도 모두 재벌을 신뢰하고 거거서 일하려 한다는 현상은 기괴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재벌과 다른 기업들을 변별하는 기본적 기준은 크기이니, 재벌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려면 먼저 크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생명체를 사회 조직이든 오래 사는 데는 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풀이나 곤충은 한 해를 넘기기 어렵지만, 나무는 몇백 년을 거뜬히 살고 짐승은 몇십 년을 산다. 조직도 마찬가지로, 큰 나라는 오래 가지도 않지만 작은 나라는 늘 위태롭고, 대기업은 오래 가지도 개인 기업은 몇 해 못 간다. 이처럼 큰 존재들이 오래가는 까닭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크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생명체는 사회 조직이든 구성 요소들의 무작위적 움직임들이 항상성을 위협한다. 생명체는 분자들의 끊임 없는 운동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회 조직은 구성원들의 비행이나 이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몸집이 커서 구성 요소들이 많으면, 이런 무작위적 움직임들의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 외부 환경의 영향으

로부터 내부의 항상성을 지키는 데도 크기가 중요하다. 실제로, 급격한 정치적 또는 기술적 변화에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보다 훨씬 잘 대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명체나 기업이냐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 자연스레 쉽게 자라난다는 사실이다. 자연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생명체는 개체들이 늘어나 전체 생질량(bio-mass)이 커진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기업은 규모가 커진다. 따라서 대기업을 억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성공적 적응을 벌하는 것이다. 이치가 맞지 않고 경제에 크게 해로운 수밖에 없다. 기업이 계속 성공하려면, 제품들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외주에 맡기던 공정들을 내부에서 하게 되어, 종사하는 분야들은 점점 늘어난다. 즉 성공적 기업은 몸집만이 아니라 사업 범위도 늘어난다. 대기업이 지닌 결정적 이점은 시장에서 서나오는 좋은 변화들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큰 성공은 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그럴 힘이 없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누리는 반도체 경기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큰 위협을 지면서 큰 투자를 한 덕분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큰 이익을 보는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의 규제가 대체로 우리 기업들에만 적용되어서, 외국 대기업들은 오히려 우대받는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드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역할이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긋하다. 이제 국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성가쳐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었다. 자연히 대기업들은 더욱 중요해진다. 나라마다 암묵적으로 자국 대기업들을 지원한다. 우리 사회만 예외다. 중소기업들만 온실에서 키워서, 중소기업들은 중견 기업으로 자라나는 것을 마다하고, 중견 기업들은 대기업 지정을 사악처럼 여긴다. 기업에 대한 정책이 이래서야,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커져서 둘레의 강대국들로부터 대접을 받았는가? 지금 형편에선 대기업들이 늘어나기도 더 자라기도 어렵다. 세계에서 일류 기업 대접을 받는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열 개만 있다면, 내 통장의 잔고가 달랑달랑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 자리에 들 것이다.

社說

제2순환도로 혈세 지원 이제 끊을 때도 됐다

광주시가 지난 12년간 혈세 750억 원을 보전해 주었던 제2순환도로 3-1구간(출덕IC~풍암택지, 3.53km)의 재정 수입 보장(MRG) 계약에 따라 광주시가 이 구간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부과를 지원해 줄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선다. 그동안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 계약에 따라 광주시가 이 구간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부과를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MRG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해 도로 등을 건설한 뒤 통행비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적으면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51억~72억 원씩 그동안 총 750억 원을 광주순환(주)에 보전해 주어야 했다. 3-1구간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주)에는 맥쿼리(75%)와 교직원공제회(25%)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하이

줄지 않는 여객선 사고 여전한 안전불감증

전국 여객선 사고의 절반 이상이 전남 지역 해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운항 부주의와 선박 노후화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9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연안 여객선 사고는 모두 22건이며, 이중 11건이 전남에서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연안 여객선 사고 37건 가운데 무려 62%인 23건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특히 최근 수년 새 바다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소형 선박의 고장이나 충돌 사고까지 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사고의 절반가량이 선박 노후화와 기관 고장에 따른 것으로, 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과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고흥군 거금도 북서쪽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캐리리 N호가 우현 기관 고장으로

종교칼럼



장 현 권
서정교회 담임 목사

종교 개혁 500주년, 한국 교회에 보내는 편지

류 종교 개혁이 있는가 하면 비주류 종교 개혁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 좌파인 좌경화 종교 개혁으로 불리는 급진 종교 개혁이 그것입니다. 루터나 칼뱅 이전에도 교회 개혁 운동은 존재했습니다. 아니 유대교에 대한 예수의 개혁적인 비판이 십자가 처형과 부활 신앙이 바울 중심으로 기독교 탄생을 볼 때 처음부터 기독교는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고대 교회 은둔 수도사의 등장 역시 신앙 개혁이지요. 후기 중세에도 새로운 경건 운동 역시 개혁적인 열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개혁의 역사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 교회 원리이지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개혁은 저 멀리가고 지난 130여 년간 한국 교회 역사속에 저폐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 맘몬으로 가득찬 황금 우상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이지요. 성공과 변형 명성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요. 외적인 성장과 물질적 풍요, 육신적 쾌락, 자본이 하나님 이 된 것입니다. 바알신이지요. 돈이 이끌어가 는 교회는 아닌가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은과 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다. 은과 금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사회에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시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시장은 돈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곳입니다. 교회 역시 복음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분회파 신학자의 지적처럼 '싸구려 은혜'입니다. 목사는 값싼 은혜와 구원과 십자가를 상품화 했지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현금이라고 하는 돈으로 매매합니다. 임직 때 총회장 선거 때 마치 성직 매매 같은 돈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학 역시 십자가의 고난 신학은 실종되고 변형 신학, 축복 신학이지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되어 승자 독식을 하는 위험한 사회에 위협 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통해서 목사는 그것을 누리고 사후화가 된 것처럼 교회 세습화, 황령과 성별병 등으로 사회적 이미지는 추락한 것입니다. 내 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는 진미 반공과 불의한 정권을 지지하는 타락한 교회가 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500년 주기로 교회 역사

무너짐과 세워짐으로 반복되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무너지는 교회는 기복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허영과 탐욕 그리고 명예와 권력, 갈등과 분쟁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물질적이며 육적인 교회가 무너지면 성경하고 거룩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종교 개혁 500주년, 루터의 95개 조항 1조항이 회개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제 2 종교개혁이 필요하지요. 처음 종교 개혁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라는 구호였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 개혁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은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치유의 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억해야 하지요.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위해 적폐 청산을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역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개혁을 해야 합니다.

기 고



정 혜 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광주형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같은 해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됐다. 이러한 것들이 거름과 토양이 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향유층이 증가했다고 본다. 시민 참여는 관광 등 수동적인 것도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인 것도 있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적극 참여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 인원수나 예산 증액 등 객관적 지수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프로그램의 참여도나 적극성 등이 매년 뜨거워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낀다. 창의 예술 학교, 토요 예술 캠프, 경자씨와 재봉틀, 문화예술 교육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창의 예술 학교'는 광주의 특성과 정체성, 문화예술 교육현황 등을 감안해 2012년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자연, 놀이, 예술 등을 주제로 매년 4~5개 단체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개 자치구별 운영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문화예술 교육, 생애주기형 문화예술 교육으로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대표 프로그램이다. '토요 예술 캠프'는 '어린이 놀이 도시'라는 주제로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공간

을 구성하고 놀이를 찾으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통합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2015년 '창의 예술 캠프 우라부락-어린이 놀이 도시 I'로 시작했다. 올해는 '어린이 목수 축제'를 전국 최초로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 '경자씨와 재봉틀'은 2014년 50~60대 중년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고민과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했다. 찬란했던 젊은 시절 꿈꾸었던 소망을 실현하고자며 새로운 인생 도전을 응원하는 '경자씨와 재봉틀'은 자타공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의 대표 브랜드다. 마지막으로 '광주 문화예술 교육 축제'는 지원사업 운영 단체의 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축제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올해는 2회 차로 오는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에서 55개 단체가 꾸미는 전시, 공연, 체험, 놀이마당과 특별부스 등이 운영된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을 세우는 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 계획이 수립되면 각 지역에서도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광

주시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성장 기대가 크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문화예술 교육의 지평도를 재점검하여 마련되는 '광주형'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에서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이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주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고 지역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와 단체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광주만의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확산되고 공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형 문화예술 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광주 문화예술 교육의 자산을 나무로 보면, 앞선 몇 가지 사례들을 포함한 몇 그루는 이제 3~5년 생 묘목으로 막 발을 댄 정도이다.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광주형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로 씨를 뿌리고 가꾸 광주 문화 예술 교육이 풍성한 숲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無 等 鼓

아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스포츠임을 보여 주는 두 선수 가 있다. KIA 타이거즈 김선빈과 미국 메이저 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호세 알투베. 둘은 올 시즌 타율 0.370과 0.346으로 나란히 타격왕에 올랐다. 190cm가 넘는 장신 선수들이 득세하는 무대에서 165cm 단신 선수들이 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많은 연습량 덕분이다. 김선빈은 화순고 시절 투수와 4번 타자를 도맡은 애이스였지만 “저렇게 작은 몸으로 프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변

작은 거인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더 야구에 매달리고 몰두하며 신체의 단점을 실력으로 승화시켰다.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태도로 꾸준히 연습을 했는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김선빈은 25일부터 열리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새로운 준비에 들어갔다. 처음 맞는 큰 무대에 설려는 마음도 크더마 좀 더 즐겁게 경기에 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작은 거인'의 호쾌호·이현근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이며 체력 소모가 많고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 포지션으로는 1994년 이종범 이후 무려 23년 만의 대입이다. 특히 9번 타자 타격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있거 힘든 진기록. 선수 평가지표인 OPS(출루율+장타율)는 0.897을 기록했다. 타격만으로도 20승 투수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친 것이다. 알투베의 활약도 김선빈 못지않다. 아메리칸리그 타격왕 2연패를 했고 양대 리그 타격 1위에 올랐다. 홈런 24개에 도루는 32개. 팽팽한 투수전에선 '발 야구'로 경기를 지배하고 팀이 지고 있으면 한 방으로 승부를 뒤집기도 했다. 두 선수 모두 야구를 하면서 작은 키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더 야구에 매달리고 몰두하며 신체의 단점을 실력으로 승화시켰다.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태도로 꾸준히 연습을 했는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김선빈은 25일부터 열리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새로운 준비에 들어갔다. 처음 맞는 큰 무대에 설려는 마음도 크더마 좀 더 즐겁게 경기에 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작은 거인'의 호쾌호·이현근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이며 체력 소모가 많고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 포지션으로는 1994년 이종범 이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